

## 대계 이승희의 『달페일기(達狴日記)』의 창작 배경과 인물형상 연구

한 길 로\*

- I. 서론
  - II. 『달페일기』의 창작 배경과 서사 전개
  - III. 저항적 인물 형상을 통한 현실극복 의지의 피력
  - IV. 결론

### 국문초록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수많은 민중들과 유림들이 이에 저항했다. 구한말 한주학과(寒洲學派)를 이끈 이진상(李震相)의 아들 이승희(李承熙) 역시 이등박문으로 대표되는 일본 세력과 을사오적과 같은 매국대신을 매섭게 성토하며, 오적(五賊)을 척결하고 조약을 파기하라는 상소를 올리려 상경했다. 하지만 이후, 대구경무서(大邱警務署) 소속의 순사(巡査)와 순검(巡檢)의 손에 이끌려 1905년 12월 6일(음력) 대구옥(達狴)에 갇힌 수인이 된 이승희는 이듬해 4월 7일까지, 약 103일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달페일기』는 수인이 된 그가 ‘대구옥’에서 경험한 것

---

\* 중국 길림대학교 전임강사 / philosmind@naver.com

들을 담고 있다. 『달페일기』는 일기라는 표제와 형식을 갖고 있지만, 보통의 일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하루하루의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차분하게 ‘기록’하여 소장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타인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지가 깊게 반영되어 있었다. 일기 속 이승희 자신은 일본 경찰의 겁박을 모두 물리치고 나아가 심문과정에서는 을사조약의 합법성과 통감부 설치의 정당성을 모두 논박하는 인물이었다. 또한 계속되는 겁박과 회유에도 그는 자신의 “직분”을 다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감옥에서도 그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며 일본과 투쟁했던 경험을 ‘일기’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문중과 그리고 식자층에게 전하고 있었다. 국가는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개인은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며 함께 국난을 극복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요컨대 그의 일기는 일기라는 표제와 ‘형식’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일기’류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빼어난 현장감과 생동감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즉 이 작품은 을사조약 직후 저항 유림의 구국의지와 불굴의 정신을 대단히 잘 보여주는 ‘대화체 한문일기’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이승희(李承熙), 한주학과, 『달페일기(達狴日記)』, 『한계유고(韓溪遺稿)』, 저항문학

## I. 서론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은 전 방위적으로 조선을 압박했고 대한제국 수립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왕과 대신을 겁박했고 또 회유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시킴’으로써 무력에 의한 강제 병합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 사이 수많은 유림 지도자와 민중들은 의병이 되어 그들과 맞서 싸웠고, 일부는 분한과 자책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을 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생들이 유배나 옥고를 치르게 된다. 구한 말 한주학과를 계승한 사상가이자 위정척사 운동에 앞장선 항일운동가인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1847~1916) 역시 그 중 한 사람이다.<sup>1)</sup>

그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소수(疏首)’로서 지역 유림 장석영(張錫英, 1851~1926)<sup>2)</sup>·이두훈(李斗勳·1856~1918)<sup>3)</sup> 등과 함께 대국대

1) 참고로 본래 그의 호는 강계(剛齋)였고 이후 대계(大溪)로 바꾸었다. 이후 그는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면서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해 ‘한계(韓溪)’로 개호(改號)했다. 본고는 망명 이전인 1905~1906년의 일을 다루고 있는 바, 그의 호를 ‘대계’로 사용함을 밝힌다. (금장태, 「한계 이승희의 생애와 사상(1)」, 『대동문화연구』1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85, 7쪽)

2) 장석영(張錫英, 1851~1926): 본관은 옥산(玉山), 자는 순화(舜華), 호는 회당(晦堂)으로 경북 칠곡의 각산(角山)에 거주하였다. 이진상의 문인으로 이승희와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 을사조약이 겁박에 의해 체결되자 이승희·이두훈 등과 함께 상소를 작성하여 상경했다. 1912년 1월, 만주에 있던 이승희를 찾아가 그와 더불어 원세개에게 글을 보내고, 동삼성 총독 조이손(趙爾巽)에게 글을 보냈으며 해외 독립기지 건설 운동과 이주개척지 교포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遼左紀行文」을 작성했다. 귀국 후 이진상의 「한주집」과 이승희의 「대계집」 교정에 착수했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섰다. 1919년 과리장서의 초안 작성을 맡아 서명하였고, 성주면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5년 제2차 유림단운동이 있을 때 영남 지역의 대표로 활동했다. 1977년 대통령표창,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으며 문집으로는 『회당집(晦堂集)』이 전한다. (이택동, 「회당 장석영론」,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참조)

3) 이두훈(李斗勳, 1856~1918):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대형(大衡)이며 호는 홍와(弘窩)이다. 그 역시 이진상의 문인으로 이승희·장석영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했다. 1905년 이들과 함께 상소운동에 적극 동참했고 1907년에는 고령군 국채보상회

신의 처벌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는 「청주적신과늑약소(請誅賊臣罷勒約疏)」를 직접 고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상소투쟁’을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고 심지어 이를 계기로 대구경찰서에서 103일 간의 옥고를 치르고 나오게 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달폐일기(達弊日記)』(1906)는 그의 기억 속에 남겨진 대구경찰서에서의 경험을 담고 있다.<sup>4)</sup>

이승희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크게 유림계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과 선친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사상을 계승한 한주학과 사상가로서의 면모에 집중되었다. 또한 해삼위, 즉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이후의 공자교 운동으로 대표되는 대외 활동과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이 상당히 진척되었다.<sup>5)</sup> 반면 일기의 형식의 한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에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1913년에는 장석영과 함께 만주, 노령 등지의 망명지를 찾아 새로운 유교공동체 건설을 모색하기도 했다. 문집으로 『홍와집(弘窩集)』이 전한다. (이세동, 「홍와(弘窩) 이두훈(李斗勳)의 삶과 학문」, 『퇴계학과 유교문화』4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참조)

- 4) 심사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저자 미상의 「견문록(見聞錄)」(경남대 남명학연구소 소장, 필사본, 1905년 추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嶺儒疏 - 再疏 - 前參泰李承熙被囚問答 - 正月初七日誓廳問答 - 投觀察書 - 獄中除夜 - 獄中之懷.”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는 다르지만 모두 『한계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달폐일기』에 한정하면, “乙巳十二月二十五日”과 丙午正月初七日”의 내용이 “前參泰李承熙被囚問答”, “正月初七日誓廳問答”이라는 표제로 각각 수록되어 있다. 대략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고 그 내용도 비교적 간략한 편이다.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살피지 못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자료를 소개해준 익명의 심사 위원에게 사의(謝意)를 전하는 바이다.
- 5) 금장태, 「한계 이승희의 생애와 사상(1)」, 『대동문화연구』1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유준기, 「한계 이승희의 정치사상」, 『논문집』3, 충신대학교, 1983; 「한계 이승희의 사회개혁사상」, 『논문집』5, 충신대학교, 1985; 「한계 이승희의 교육사상」, 『논문집』8, 충신대학교, 1989, 김종식, 「한계 이승희의 공자교운동과 유교개혁론 문제」, 『새한철학회』38, 한국국학진흥원, 2004, 정나찬, 「한계 이승희의 학교교육론」, 『교육철학』25, 한국교육철학회, 2004; 「한계 이승희의 지역사회교육론」, 『교육철학』27, 한국교육철학회, 2005, 김기승, 「한계 이승희의 독립운동과 대동사회 건설 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왕원주, 「1910년대 전반기 한계 이승희의 중화사상과 민족인식」, 『역사교육』103, 역사교육연구회, 2007, 정병식,

『달폐일기』에 대한 세밀한 고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sup>6)</sup> 다만 그의 아들 이기원(李基元, 1885~1982)이 위 일기를 저본으로 삼아 국문으로 작성한 『을사명의록(乙巳明義錄)』과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sup>7)</sup> 하지만 본 작품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과 의의를 밝히는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본고는 『달폐일기』를 하나의 역사적 사료이자 ‘대화체 한문일기’로서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서사의 전개과정과 형상화 방식에 천착하려 한다. 물론 위의 일기는 『윤치호일기』처럼 매일의 일과 감정을 소상히 적어낸 통상적 의미의 일기는 아니다. 작자 개인과 더불어 사건의 전개에 비중을 두고 비연속성의 산발적 기록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건(건문)일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래서 「달폐일기」는 ‘일기’ 그 자체로서의 완성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일기글쓰기의 ‘형식’을 넘어,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주관과 당시의 ‘온도’를 잘 담

「한계 이승희의 도덕적 종교관」, 『유교사상연구』39, 한국유교학회, 2010, 이택동, 「대계 이승희론」, 『시학과 언어학』22, 시학과 언어학회, 2012, 정병석, 「한계 이승희의 한주학 계승과 현실의 대응」,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황영예, 「한계 이승희와 해창 송기식의 공교운동의 상이성」, 『유교사상문화연구』39, 한국유교학회, 2010, 이윤갑, 「한말 이승희의 국권회복론 연구」, 『한국학논집』6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성민경, 「한계 이승희의 여훈서(女訓書) 편찬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78, 민족어문학회, 2016, 이상호, 「대동사회, 변법인가? 수양인가?」, 『국학연구』32, 한국국학진흥원, 2017, 윤현태, 「한계 이승희의 중화민국 인식」, 『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6, 중국인문학회, 2018, 임종진, 「한계 이승희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분석」, 『퇴계학논총』33, 퇴계학부산연구원, 2019.

6) 최초 『대계집(大溪集)』은 이승희의 장남 이기원(李基元, 1885~1982)의 주도로 1927년에 간행되었다. 이후 1976~198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초간본으로 참조, 누락된 것을 보충하여 「한계유고(韓溪遺稿)」(총 9권, 한국사료총서 제23)를 간행하였다. 『대계집(大溪集)』(卷30)에는 4편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검열을 의식하여 「달폐일기(達狴日記)」는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달폐일기」는 『한계유고(韓溪遺稿)』(卷6)에 추가 수록되었다. 본고의 저본 역시 『한계유고』6(1979)임을 밝힌다.

7) 고순희, 「근대계몽기 「을사명의록」에 나타난 인물의 형상과 의미」, 『국학연구』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8)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30, 대동한문화회, 2009, 25쪽.

고 있어 그 시기를 살아간 저항 유림들의 실상에 보다 더 근접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일기체에 가깝기보다 대화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해가며 보통의 일기가 담을 수 없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잘 드러냄으로써 당시 상황을 입체적이면서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기는 이 시기 누구보다 투철하게 일본에 저항했던, 이승희로 대표되는 성주 일대 한주학과 유림의 저항의지와 백절불굴(百折不屈)의 면모를 대단히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또한 구한말 일본에 적극 항쟁했던 유림들이 직접 남긴 ‘감옥’ 관련 수기나 서사 작품이 상당히 드물기에, 문학적·사료적 가치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의를 갖고 있는 본 작품의 창작 배경과 서사의 전개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어 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적 면모를 살펴려한다. 이를 통해 이 일기가 가진 개성을 드러내면서, 그가 이 일기를 작성함에 있어 무엇을 염두 했고 또 기대했는지 조명하려 한다.

## II. 『달폐일기』의 창작 배경과 서사 전개

먼저, 본 일기의 창작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1886년 부친 이진상의 사후, 이승희는 그의 학통을 이어 받아 이 일대 유림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라는 비상시국에 직면했을 때 당시 성주 인근의 항일 운동에서도 중추를 담당했다. 그는 을사조약이 강요되던 8월, 일본이 조정에 고문관을 두고 조선의 정치에 관여함을 알게 되자 국운을 갇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분연히 소를 작성하여 고종에게 상주하려 했다. 그 때의 상소가 바로 「의진시사소(擬進時事疏)」였다.<sup>9)</sup> 이 때 그는 네 가지 조목을 통해 그 요체를 제시하며 고종에게 직접 상소하려 했으나 일본이 현직 관료가 아닌 유생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어 실패했다. 이

9) 『韓溪遺稿』卷7, 「年譜」, 538쪽. “時朝廷置日人顧問官, 干預我國政, 先生自以重被國恩, 未報爲恨, 至是憤然欲投疏.” 참고로 「의진시사소(擬進時事疏)」에서 그가 제시한 4조목은 “明大倫以立宗教, 整朝綱以進賢材, 去私利以安民業, 團民伍以壯兵威.”이다

에 그는 동지이자 지음과도 같던 곽종석(郭鍾錫)<sup>10)</sup>이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알고 그를 통해 이를 진행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일본의 저지로 실현되지 못했다.<sup>11)</sup> 결국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도내 유림에 통문을 돌려 지역 유림을 규합한 뒤 직접 상경하여,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적신”으로 규정하며 그들을 처벌하고 조약의 파기를 요청하는 「청주적신과능약소(請誅賊臣罷勒約疏)」(『한주유고』 권7)를 직접 상소하려 했다.

이 때 그는 300여 명의 지역 유림을 이끌고 11월 16일 서울에 도착했지만 직접 상소할 수 없자 26일 승정원에 투소(投疏)했고 비답이 없자 29일에 재소(再疏)하고 12월에 돌아왔다.<sup>12)</sup> 그러나 끝내 비답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그를 찾아온 것은 대구경무서(大邱警務署) 소속의 순사(巡查)와 순검(巡檢)이었다. 이렇게 12월 6일(양력 1906년 1월 19일) 대구옥에 갇히는 수인(囚人)이 된 이승희는 이듬해 4월 7일(양력 1906년 5월 1일)까지, 약 103일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sup>13)</sup>

10) 곽종석은 1885년 비안(比安) 현감(縣監) 제수를 시작으로 수차례 고종으로부터 초치가 있었으나 강학에 힘썼다. 이듬해 1903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고 비서원승(秘書院丞)에 제수되자 이를 고사하다 8월 28일 고종과 독대하여 구국 의견을 상주하였다. 이 기간 고종은 감복하여 의정부참찬·경연관 등의 관직을 주고 집 한 채를 하사할 정도로 그를 신임했다. 그는 9월 13일 사직소를 올리고 23일 다시 귀향했다. 이후 1905년 소명을 받아 상경하는 중 을사조약 소식을 듣고 이승희 등과 연계하여 상소하려 했으나 비답을 받지 못하고 다시 귀향했다. (『면우집』, 「연보」)

11) 이윤갑, 「한말 이승희의 국권회복론 연구」, 『한국학논집』6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269쪽.

12) 『연보』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6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26일에 정원(政院)에 상소하였다. 뒤에 오는 자를 기다리기를 수 일이 지나자 일본인들이 이미 탐문을 하고 병사를 풀어 수색하니 몰래 몰래 모인 자가 겨우 3백인이었다. 만약 원만해지기를 기다린다면 일이 성사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투소하기로 결정하니 사람들은 선생을 추천하여 소수로 삼고 장희당(張晦堂), 이홍와(李弘窩) 두 사람을 다음으로 삼았다. 복합(伏閣)하지 못하고 곧장 비원(秘院)에 투소했다.” (『韓溪遺稿』卷7, 「年譜」, 540쪽, “十六日抵京城, 二十六日呈疏于政院, 待後來人, 經數日, 日人已探聞, 發兵搜索, 暗暗會集者, 僅三百餘人, 若待圓滿, 則恐不濟事, 遂決定投疏, 衆推先生爲疏首, 張晦堂, 李弘窩兩公次之, 不得伏閣, 直呈疏于秘院.”)

13) 다음은 그가 수인이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된 「청주적신과능약소」의 일부이다 “저 적

그는 을사조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주모한 이등박문과 을사오적을 성토하는 내용의 상소를 전하고 고향에 내려왔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순’한 행동이었다. 게다가 그는 또 일본군에게 지명(指名)되어 붙잡히는 과정에서 “모든 한국의 신자(臣子)들이 일본을 원수”로 삼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압제함은 천하에 보증되어 밝혀졌다.”는 내용의 투서를 일본사령부에 보내기도 했다.<sup>14)</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경찰은 투소할 때부터 그와 유림들을 주시했었기에 그를 향한 일본의 압박은 일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리해보면 그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상소를 들고 고종을 직접 찾아 상주(上奏)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100여 일이 넘는 기간 감옥에 머문 그는 이때의 일을 개인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자, 일기의 형식으로 그 날의 기억들을 복원하여 기록했다. 즉 기본적으로 『달폐일기』의 창작은 그의 투옥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유림의 문제였고 또한 조선 유림과 국사와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탄압은 자

신(賊臣)이라는 자는 폐하의 신하지만 일본국의 장두(腸肚)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제순(齊純)·지용(址鎔)·근택(根澤)·완용(完用)·중현(重顯)은 함께 인가(認可)를 말하며 이제국에게 조인을 직청(直請)하여 종사(宗社)와 강토를 들어다가 적의 손에 갖다 바쳤으니 이는 대한 강상(綱常)의 적입니다. 지금 토벌하지 않음은 곧 폐하가 스스로 강상을 자멸하고 신자(臣子)를 가르쳐 군부(君父)를 배반케 하는 것이니 장차 누구와 더불어 보존을 도모한단 말씀입니까? (…중략…) 저 이등박문이라는 자 또한 일본국의 대신이나 몰래 열 나라의 역신들과 결탁하여 군상(君上)을 겁박해 도적의 계책을 자행하며 끝없는 욕심을 극도로 채웠습니다. 이는 곧 천하 강상의 적으로 일본국으로 하여금 주살토록 하지 않는다면 일본에는 강상이 없게 되고 천하가 치지 않는다면 곧 천하에는 군부(君父)가 없게 될 것입니다.” (『韓溪遺稿』卷1, 「請誅賊臣罷勒約疏」, 196쪽, “彼賊臣者, 以陛下臣子, 腸肚於日國, 齊純址鎔根澤完用重顯, 同辭認可, 載克直請調印, 奉宗社疆土, 納之敵人之手, 此大韓綱常之賊也. 今不討之, 是陛下自滅其綱常, 教臣子以背君父也, 將誰與之圖存也? (…中略…) 彼伊藤博文者, 亦日國之大臣也, 潛結隣國逆臣, 脅迫其君上, 肆行盜賊之計, 亟充其谿壑之欲, 是則天下綱常之賊也, 使日國而不誅之, 則日國無綱常也; 天下而不討之, 則天下無君父也.”

- 14) 『韓溪遺稿』卷7, 「年譜」, 541쪽, “投文于日本司令府. (註)方投疏之際, 日兵指名跟捕, 故作此文曰: 我大韓李承熙也, 今我韓臣子, 皆當與日本爲讎. (…中略…) 夫貴國, 曾以我韓之被人壓制, 爲之保明於天下.”



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에, 그 때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며 이를 참고하길 기대했던 것이다.

그럼 서사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본 일기는 투소하고 고향에 내려온 지 12일 뒤, 대구경무서 소속 검사와 검순 그리고 관노들이 새벽 무렵 그의 집을 들이닥친 날부터 출옥하게 된 103일간의 일을 담고 있다. 감옥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매일매일 일기를 쓰지 못하여 출옥 이후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자를 명시한 것도 있지만 “간(間)·수일(數日)·기일(幾日)”과 같은 단어로 일자를 표기하기도 했다.<sup>15)</sup> 그리하여 일기는 일자별 사안을 따라 기술되기보다 유의미한 상황과 장면에 중점을 두며 집중적으로 서술되

15) 「달페일기」의 일자별 기록과 주요 배경 및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월일	주요 내용 (괄호는 공간배경)	등장 인물 (괄호는 거론된 인물)
乙巳十二月二十五日	자택에서 체포되어 대구경찰서로 압송 후 입옥 (自家 → 衙廳 → 州肆 → 大邱警署)	李基元, 日本巡查 安藤榮三郎, 慶北警務署巡檢 金鎮岳
二十六日	심문.(警務廳室)	警部 鎌田三郎, 通辭, 巡檢, 廳使 (張錫英 · 李斗勳 閉泳煥, 趙秉世, 朴基陽, 伊藤博文)
丙午正月初七日	심문.(警部庭)	警部 鎌田巡檢, 通辭, 廳使
正月旬間	함께 상소한 이두훈(李斗勳)과을 만나고 아들 기원(基元)에게 자신을 위해 과도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당부함. (獄)	李斗勳, 李基元 (散宜生)
正月二十日	심문.(警廳)	警部 鎌田巡檢, 通辭, 巡檢
數日	심문.(警廳)	警部 鎌田巡檢, 通辭, 巡檢 柳道性, 金道和
二月間	新觀察 申泰休에게 옥에서 남녀유별을 건의하고 경사(京司)에 이등박문과 이지용을 벌할 것을 상소함. (獄)	新觀察 申泰休, 李址鎔, 伊藤博文
三月間	총순 박연조(朴淵祚)와 순검 최두운(崔斗潤)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거하기 편한 청리방으로 옮김.(獄 → 廳使房)	摠巡 朴淵祚, 巡檢 崔斗潤
幾日	심문과 함께 아들과 지역에서 자신의 출옥을 교섭한다는 말을 듣고 만류함. (警部庭)	警部 鎌田巡檢, 巡查 安藤 (許愈)
四月初七日	가족과 장석영의 소식을 접함. (獄)	(再從兄 李達熙, 張錫英, 族孫 李晋錫)
四月初八日	출옥.	警部 鎌田巡檢, 巡檢, 李達熙, 廳使

었다. 그리고 기승전결의 구도에서 ‘체포-입옥-심문(회유)-출옥’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서술은 평면적인 서술이 아닌 ‘대화’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는 대화 중심의 서술을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럼 일기의 서두에 기록된 체포의 과정을 살펴보자.

을사(1905) 12월 25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머리 깎은 흙빛 사내 셋을 보았는데 본 군(성주군·필자주) 관노 몇 사람을 데리고 문으로 들어오더니 곧 장 계단에 올라왔다. 내가 마루로 올라오도록 하고는 세수하는데 세 사람이 빙 둘러 서있었고 내가 세수를 마치자 그들은 방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가 “그대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소?”라고 묻자, 저들이 명첩(名帖)을 들이밀며 한 사람이 “일본순사 안등영삼낭(安藤榮三郎)이요.”라고 말하고 다음 사람은 “경북 경무서 순검 김진악(金鎭岳)이요.”라고 답했다. 진악이 “참봉 이승희가 아니오?”라고 물으니 “그렇소.”라고 답했다. “겨울에 일한신조약(日韓新條約) 일로 상소를 올린 적이 있소?”라고 하니 “있소.”라고 했다. “그 때 향내(鄉內)에 통문하지 않았소?”라고 물으니 “그렇소.”라고 했다. “소초(疏草)가 있지 않소?”라고 하여 내가 아이를 불러 소초(疏草)를 찾아 가져 오니 안등이 펼쳐 바라보고는 손으로 잡고 다시 통초(通草)를 찾자 내가 “이 때는 향교에 통초를 보내서 지금은 없소.”라고 말했다. 진악이 “지금 관찰부의 내부훈령에 따라 이 참봉에게 부(府)에 나아가 길 명하니 즉시 응당 본 읍으로 갈 차비를 하시오.”라고 했다.<sup>16)</sup>

일기의 도입부에서 이승희는 일본경찰의 출현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음을 밝혔다. 아직 세수도 하지 않은 새벽,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경찰서 관계자들이 다짜고짜 이름을 묻고 곧바로 상소를 문제 삼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관찰부의 ‘내부 훈령’을 근거로 그를 체포하고 경찰서까지 대동할 것을 으박지르듯 명했다. 하지만 이승희는 ‘내

16) 『韓溪遺稿』卷6, 「達達日記」(이하 『日記』), 419~420쪽. 乙巳十二月二十五日, 朝起方盥, 見兇黑三人, 帶本郡官隸數輩入門, 直升階, 余指使升堂, 仍盥. 三人環而立, 盥畢, 入室坐定, 余問彼爲誰, 有何幹, 彼以名帖進, 一曰: “日本巡查安藤榮三郎”, 次一曰: “慶北警務署巡檢金鎭岳.” 鎭岳問: “余是李叅奉承熙否”, 曰: “然”, 問: “冬間, 以日韓新條約事, 有上疏事否”, 曰: “有之”, 問: “其時通文鄉內否”, 曰: “然”, 問: “有疏草否”, 余呼兒覓疏草來, 安藤展看而手執之, 又索通草, 余曰: “爾時送通草于校中, 此今無之”, 鎭岳曰: “今有觀察府因內府訓令, 令李叅奉赴府, 即當入本邑治發.”

부훈령을 보지 못한다면 갈 수 없다'고 도리어 어깃장을 놓으며 그들을 당황하게 했다. 몇 번이고 실랑이가 오가자 일본 순사 안등은 칼과 육혈포(六穴砲, 권총\_필자주)을 꺼내어 그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승희는 “평생 보검이나 육혈포를 본적이 없어 그러니 한 번 봐도 되겠소.”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즉 초반의 기세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그들의 위압에도 일절 미동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sup>17)</sup>

하지만 체포를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한 그는 유럽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에게 대응했다. 이에 그는 “내가 마땅히 읍에 들어가겠소. 사우에 아뢰고 출발합시다.”라고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통사를 통해 어렵게 사우에 고하고 집을 나서게 된다.<sup>18)</sup> 이 때 그는 자신의 심정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모진 바람에 빠가 예는 듯했고 한기는 아교를 꺾는 듯 했다(是日獐風砭骨, 寒氣折膠).”라는 날씨 묘사를 통해 당시의 비통하고 씁쓸한 자신의 심사를 간접적으로 전했다.<sup>19)</sup> 이렇게 집을 떠나 읍의 관아에 도착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체포한 근거가 된 ‘훈령’이란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결함을 발견하고는 다시금 강력하게 따져 묻게 된다. 즉 자신의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희(熙)’가 아니라 ‘희(喜)’로 기재된 것이다.<sup>20)</sup> 하지만 일본인 안등은 단 순 오기라며 그의 의견을 기각하고 결국 그를 겁박하여 입옥에 이르게 된다. 이승희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 일본 경찰력의 영성함을 드러내면서

17) 『日記』, 420쪽. 余曰: “可見府訓否”, 安藤曰: “到邑方聞”, 余曰: “不見訓令, 不可發”, 往覆再三, 安藤辭色甚猛, 執佩刀, 逼坐余傍, 鎮岳坐當面, 日兵執銳當闥, 兒輩及堂內會者, 無人色. 余笑顧安藤, 撫其佩刀曰: “此應利劍, 可一見否?”, 安藤瞠目直視, 余又笑曰: “余平生不見寶劍及六穴砲, 故欲一見之”, 鎮岳云云, 安藤降其色, 撫劍云云. 盖言不可示人之意也, 仍出六穴砲, 開面示之, 余取看畢, 還之.

18) 같은 책, 421쪽. 徐曰: “余當入邑矣, 謁祠宇乃發”, 安藤拂然不可, 余顧鎮岳曰: “君可以理曉之”, 屢強乃可, 跟余至祠前, 余晨謁, 因口告云云.

19) 위와 같음.

20) 위와 같음, 余催發, 乘步輦入邑. 時適官空, 安藤欲入衙宣訓, 余叱吏輩曰: “衙廳豈日人可坐耶?”, 遂止門外, 示府訓曰: “因內府訓令, 星州李參奉承喜捉上府下”, 余曰: “余名熙, 而訓以喜, 當報府更審乃發”, 安藤大作辭氣曰: “此只筆誤, 事又無疑”, 迫余入獄, 吏輩皆恐懼無敢.

자신의 몸은 비록 이들에 의해 잡혔지만 일본경찰에 굴복하고 있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결국 그는 비로소 옥중에 갇히게 된다.

일본 병사가 오라로 나의 등을 덮으려 하자 내가 물리쳤고 아들 기원, 재종질 참봉 기철(基澈), 종질 기환(基煥)이 따랐다. 부상역(扶桑驛)<sup>21)</sup>에 도착하자 날이 저무니 나를 이끌여 병참으로 인도하였다. 병졸들이 나를 포위하여 서서 의관을 벗기기를 요구하니 내가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않고 “나는 평생 의관을 벗은 적이 없노라.”고 하니 병졸들이 노려보다가 이내 그쳤다. 고옥(庫獄)에 들여보내고 얼마 뒤 촛불을 들고 와서, 내가 눈을 감고 판자 위에 꿇어앉은 걸 비춰 보더니 “왜 아무 소리 없소?”라고 물었으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병졸들이 서로 말하다 나와서는 나를 이끌고 기차에 올랐고 기원과 기철도 얼마 후 뒤쫓았다. 대구경찰서 문 밖에 도착하자 내가 기원을 보며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 너는 모름지기 심력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흔들리지 말거라. 삶과 죽음에는 명(命)이 있는 법, 요행은 불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진악이 나를 이끌고 경청(警廳)으로 들어갔는데 나의 몸을 수색하여 패도(佩刀)와 영낭(纓囊)을 압수해 갔다. 갇힌 옥중에는 썩대머리와 아귀(餓鬼)들이 벽에 기댄 채 방에 쌓여 있어 무릎을 붙일 틈도 없었다. 나는 오래도록 고통스러 있었는데 그 중 일면식이 있는 자들이 있어 꺾꽂이 놀라 그 연고를 물어 마침내 서로 이야기가 전해져 자리를 양보 받았다.<sup>22)</sup>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사대부의 신분과 위엄을 상징하는 의관을 벗기려던 병졸들을 물리치고 도착한 그곳은 산발한 봉두(蓬頭)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아귀(餓鬼)와 같은 인물들이 뒤엉켜진 공간이었다. 사대부였던 그가 이들과 같은 공간에 동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굴욕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무리 속에서 겨우 좁은 공간을 차지하여

21) 부상역(扶桑驛): 경상도 개령현(開寧縣)으로 현재 김천 남쪽에 있던 역참이다.

22) 『日記』, 421쪽. 日兵以鬪覆余背, 余却之, 兒基元, 再從侄泰奉基澈, 從姪基煥跟之. 到扶桑, 日已昏, 引余入兵站. 兵人圍立, 要免余衣冠. 余植立不動曰: “余平生不免衣冠”, 兵人熟視乃止, 納之庫獄. 數餉, 以燭來視, 見余闔眼跪板上, 問曰: “何無聲也?”, 余不應, 兵人相語而出, 既而導余出乘汽車, 兒及澈侄, 從數餉. 至大邱警署門外, 余顧兒曰: “一入此, 則相面未易, 汝須定其心力, 勿爲人所動, 死生有命, 不可倖也.” 鎮岳導入警廳, 搜身邊, 去佩刀及纓囊, 囚之獄中, 蓬頭餓鬼, 倚壁堆房, 無着膝處, 余植立久之, 中有識面者, 驚詢其故, 遂相傳語, 讓以席.

앉은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은 죽음도 불사할 각오로 이곳에 들어왔음을 드러내며 옥내 투쟁의 각오를 다시금 표출했다. 자신을 위해 무리하게 일을 만들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의사였다. 한편 그의 일기에 따르면 그는 총 5번의 심문을 받았는데 심문은 모두 일본인이 진행했고 통사(通辭)가 있어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통문을 돌렸고 누구와 같이 도모했으며 왜 상소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이승희에게 겁박과 동시에 회유를 강권했지만 그는 이를 모두 반박하며 일본을 불법과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성토했다. 아래는 1906년 정월 초칠일의 심문에 대한 이승희의 기록이다.

병오(1906) 정월 초칠일. 경부(警部)가 마당에 형구(刑具)를 펼쳐 놓았다. 순검과 청사(廳使)가 나를 데려와 앞쪽 계단에 들었다. 내가 “내게 무슨 죄가 있어 이내 이 계단 앞에서 옥보이는 것이냐.”라고 하니 검전(鑣田)이 당(堂)에서 나오며 큰 소리로 “감옥에 갇힌 지 며칠 되었는데 아직도 신조약에 대한 반대의 뜻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내가 “내 마음이 어찌 변하겠소.”라고 하니 그가 버럭 하며 “어찌 다시 생각 안 했는가?”라고 했다. 내가 소리치며 “본래 다시 생각할 것이 없소이다. 이 몸이 죽지 않는 한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요.”라고 했다. 그가 “다시 상소를 할 것인가?”라고 묻기에 “나는 금번 조약은 두 나라의 의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상소하러 간 것이요. 경청하시건 그렇지 않던 우리 황상 폐하에게 나의 직분을 다할 뿐이요. 다시 상소할 일이 없더라도 만약 또한 다른 일이 있으면 마땅히 상소할 것이니 어찌 그치겠소?”라고 했다. 그가 또 성난 목소리로, “이번의 신조약은 실로 조선 땅을 위한 것이요. 조선이 일찍이 청국에게 압제를 당하여 천하에 조선의 이름이 없었으나 일본이 성명(聲明)으로 자주(自主)하게 하였소. 또한 러시아의 협제(脅制)를 입어 필경 망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일본국이 또한 탈출시켜 보내주었소. 하지만 조선 정령(政令)은 부패하고 인민들은 자지(自支)가 없으니 그럼으로 일본이 (조선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한단 말이요?”라고 했다. 내가 “청과 러시아의 협제는 불선이 되는데, 일국(日國)의 협제만 불선(不善)이 아닌 것이요? 대한의 정치가 좋지 않으면 혹 권해 일러주어 스스로 개선하게 하면 되지, 어찌 일본국의 사람으로 하여금 대한의 정령(政令)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요?”라고 했다. 이 때 통사가 기가 눌러 마치 직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죽어도 내가 죽고 갇혀도 내가 갇히는 것인데, 통사는 무엇을 두려워하여

직설하지 못하는가? 통사는 대한의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꾸짖었다. 통사가 주저하다 그를 향해 말하니 그 또한 큰 소리로 말했으나 알 수 없었다. 나를 질시한지 한참 지나자 형구를 흘려보며 이것을 사용할 것처럼 하더니만, 이윽고 “가두어라, 가두어.”라고 했다.<sup>23)</sup>

그의 기술에 따르면 일경(日警)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이승희를 향해 형구를 펼쳐 놓으며 협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것처럼 하며 압도하려 했다. 하지만 경부의 의도와는 달리 그는 경부를 향해 호통을 치며 기 싸움에 밀리지 않고 있다. 을사조약에 대한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감옥에 왔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신하로서의 직분을 끝까지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소할 것임을 선명히 밝혔다. 조약에 대한 불복과 일본에 대한 저항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 조선을 위한다는 일본의 논리가 당시의 시대적 정세를 고려해 봐도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편향된 의견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또한 경부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과정에서는 통사에게 자신의 의지를 빠짐없이 전하기를 강하게 요청했다. 반면 경부는 이승희의 태도에 화를 참지 못하여 형구를 살펴해보지만,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먼저 대화를 중단하게 된다. 즉 이승희는 자신의 논리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자리를 뜨는 그의 태도를 통해, 조약의 불합리성을 일본도 알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3) 같은 책, 425쪽. 丙午正月初七日. 警部庭張刑具, 巡檢廳使, 導余入前階, 余曰: “余有何罪, 乃辱階前?”, 鎌田出堂厲聲問: “在囚幾日, 尙有新條約反對之意否”, 余曰: “在我心者, 何可變也”, 彼勃然曰: “何不更思?” 余厲聲曰: “本無可更思者, 此身不死, 此心不可變也.” 彼問: “更上疏否”, 余曰: “我以今番勒約, 違背兩國義理, 故去上一疏, 聽與不聽, 在我皇上陛下, 其在我職事則已矣, 更無事於上疏, 若又有他事當上疏者, 則烏可已乎?”, 彼又厲聲曰: “今番新條約, 實爲朝鮮地也, 朝鮮之於清國, 曾被壓制, 無朝鮮之名於天下, 日國聲明之, 使之自主. 又被俄國脅制, 將至必亡, 日國又脫去之, 然朝鮮政令腐敗, 人民無以自支, 故日國爲之經紀, 何故反對?” 余曰: “以清俄脅制爲不善, 則日國之脅制, 獨非不善乎? 大韓政治不善, 則或勸之諡之, 使自改善可也. 何可使日國之人, 主大韓之政令乎?” 是時通辭氣攝, 似不能直說, 余責通辭曰: “死亦我死, 囚亦我囚, 通辭何畏而不直說, 通辭獨非大韓之人乎?” 通辭蹙然, 向彼云云, 彼大聲云云, 而不可知. 疾視良久, 睥睨刑具, 若將施刑者, 既而曰: “囚之囚之.”

이어진 심문에서도 이승희는 경부를 향해 호통 치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소?”, “일본인에게 또한 양심이란 것이 있는 것이요?”라는 발언으로 정면 대응했다.<sup>24)</sup> 그러자 일본은 회유를 통해 그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순검은 이승희를 출옥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알렸는데 거기에는 상소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친지를 통해 또 석방을 빌미로 그의 의지를 꺾으려던 것이었다. 경찰은 이승희의 재종형(再從兄) 이달희(李達熙)에게 이를 종용하였다. 하지만 이달희 역시 “비록 부자 형제라도 품은 뜻이 다른데 어찌 보증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두세 번 이뤄진 강요를 마지막까지 뿌리쳤다.<sup>25)</sup> 회유도 소용이 없고 또 그의 저항의지를 꺾을 수 없던 일경은 결국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한다. 일기가 종료되는 출옥의 상황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경부는 “일을 진실로 관찰시키기 어렵구나. 노인이 옥에 갇힌 지 오래되었으니 부득이 내보내야겠다. 그 몸을 자유롭게 하겠으니 다시는 딴 생각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나는 그 몸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요. 일본의 겁박을 받았으니 그 몸은 진실로 겁박당한 것일지나 그 마음 또한 겁박이라 할 수 있겠소? 나는

24) 『日記』, 429쪽. 余問: “我有何罪”, 彼曰: “思之當自知.” 余曰: “被拘三月, 思之不知, 何不明警之”, 彼曰: “久久思之, 良心自生.” 余曰; “日人亦有良心乎! 我若有罪, 何不教使改之” 彼曰: “思之自知”, 顧他而去. (경부를 향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소?”라고 했다. 그러자 경부는 “생각해 보면 마땅히 절로 알게 되리라.”라고 하니 나는 “잡혀 들어 온지 석 달 동안 생각해봐도 알지 못하겠소. 어찌 명백히 알려주지 않는가?”라고 하자 그자는 “오래오래 생각해보면 양심이 절로 자라날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일본인에게 또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내게 만약 죄가 있으면 어찌 알려주지 않고 고치라고만 하는가?”라고 했다. 그가 “생각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더니 다른 것을 보고는 가버렸다.)

25) 같은 책, 430쪽. 乃曰: “老人從弟, 今可出送, 老人可懸保署署, 更勿爲上疏事否.” 再從兄曰: “從弟前上一疏, 臣子職耳, 今則似無上疏之事, 然雖父子兄弟, 執義各異, 何可以懸保耶?” 強之再三, 終不許. (이내 김순은 “노인의 종제는 지금 보내줄 수 있소. 노인이 보증하여 서명할 수 있으니 다시는 상소의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니 재종형이 “종제가 전에 한 번 상소한 것은 신자(臣子)의 직분일 뿐이며 지금은 곧 상소의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부자 형제라도 품은 뜻이 각기 다른데 어찌 보증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자 두 번 세 번 강요하였지만 마지막까지 불허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소.”라고 했다. 그는 “당장 나가시오!”라고 했지만 나는 버티고 나가지 않았다. 그가 연신 “나가, 나가라고!” 호통하자 나는 “처음 나를 잡은 것은 어떤 뜻이며 또 지금 내보내는 건 또 무슨 뜻인가? 나는 나가길 원하지 않소.”라고 했다. 그가 또 노발하여 청리배들을 꾸짖으니 마침내 나와 순검과 청리들이 나를 포위하여 둘러싸며 나가길 청하였다. 내가 부득이 몇 걸음을 걸어가니 그가 돌아서며 미소 띤 얼굴로 청리에게 “편히 나가시게 하여라.”라고 말했다.<sup>26)</sup>

마침내 대구옥을 나가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위의 내용으로 일기는 끝났다. 일기에서 정부는 이승희가 옥을 나가게 되어 이제 상대할 일이 없어 안도하고 달가워하는 인물로까지 형상화되었다. 그를 서둘러 보내려고 하지만, 이승희는 자신은 나가고 싶지 않다며 항변하고 있다. 절대적인 ‘갑을(甲乙)관계’와 같던 서로의 입장이 뒤바뀐, 다소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체포(기)-입옥(승)-심문(전)-출옥(결)’의 전개로 작성된 이승희의 「달폐일기」는 이렇듯 일기라는 형식에 충실한 것이 아닌, 대화체를 통해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을 일반적 ‘서술’이 아닌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각 인물이 갖는 특성과 감옥의 분위기 및 온도를 대단히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즉 그의 일기는 일기로서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일기의 형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매우 잘 보여준 것이다.

### Ⅲ. 저항적 인물형상을 통한 현실극복 의지의 피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일기는 작자 1인칭의 시점에서 서사가 전

26) 같은 책, 431쪽. 彼曰: “事固難貫, 而老人幽滯已久, 不得已出送, 使之自由其身, 更勿作他想.” 余曰: “吾非不欲自由其身, 而被日人脅迫矣, 其身固可脅迫, 而其心亦可脅迫乎?, 吾不欲出他”, 彼曰: “即出”, 余堅不出, 彼連呼出出, 余曰: “始之拘我何意, 今之出我又何意, 吾不願出也.” 彼又發怒, 喝廳使輩曰, 逐出之, 巡檢廳使, 環擁請出, 余不得已行數步, 彼旋作笑容, 謂廳使曰: “使之安出.”



개되었고 서사의 줄기는 이승희와 일본 경찰과의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이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굴복’시켜야 하는 긴장관계였기 때문이다. 사실 누구에게도 그렇듯, 그에게도 감옥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칼과 육혈포를 찬 경부와 순검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형구(刑具)’를 내보이며 협박과 엄포가 ‘일상화’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감지되었을 이러한 공포가, 그의 신념과 기개마저 이겨낼 수는 없었다. 즉 본 일기는 이 시기 그가 느꼈던 다양한 면모 중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면모를 가장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나 상징보다는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일기에서 이승희를 제외하고 가장 비중 있는 인물들은 역시 일본 경찰이었다. 심문을 담당한 순사 안등(安藤)과 경부 겸전(鎌田)은 위세를 앞세워 이승희를 꺾박하고 겁박하며 회유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사실상 그들은 곧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강탈하려던 일본을 상징하고 있었다. 일기에서 이승희는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 및 표정을 통해 이러한 점을 부각하였다. 예를 들어 “당목(瞪目), 직시(直視), 진목(瞋目), 징시(瞪視), 숙시(熟視), 노목(怒目), 성노(盛怒), 여성(厲聲), 대성(大聲), 발노(發怒), 사색우려(辭色尤厲), 사색심맹(辭色甚猛), 노색징목(怒色瞪目), 성기위갈(盛氣威喝), 대작사기(大作辭氣)”와 같은 다양한 묘사를 통해 그들의 위세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 위세는 이승희에 의해 곧 ‘허세’로 들통 나고 탄로 난다. 대의와 명분을 앞세운 이승희의 주장에 그들의 논리는 힘없이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세로 이승희의 굴복을 얻어내려 하지만 도리어 그의 결기와 논리적 항변에 기가 눌리는 인물로 형상화 되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이승희를 서둘러 옥에서 보내려는 등 사실상 완벽하게 이승희에게 제압된 인물로 그려지기까지 했다. 즉 일기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묻고 항변하고, 반박하고 저항하는 인물로 형상화 된 것이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그곳을 나오기가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죽음이 닥친다 해도 그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혹여 나갈 수 없다면 끝까지 감옥에 남아 결코 신념을 꺾지

않는 대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그는 상소를 하지 않으면 보내 주겠다는 회유에 “나는 곧 우리 대한의 무용(無用)한 일개 범인이요. 한 명의 일본인을 죽여 국가의 치욕을 씻기에는 용기가 부족하고 우리나라를 도와 일본국의 원수를 갚기에는 재주가 부족하오. 지금 나는 육순이니, 죽는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소. 다만 이곳에서 갇혀 지내면서 오히려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의 마음이 신약을 반대하고 또 일본국에는 겁박의 죄가 있음을 알게 하겠소.”라며 단칼에 거부했다.<sup>27)</sup> 대의와 명분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부각한 것이다.

이렇듯, 그의 일기 속에서 그는 ‘저항하는 주체’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굴복’인 바, 굴복하여 삶을 구하는 일은 다름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에 목숨을 버리더라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28)</sup> 하지만 그가 말하는 저항은 의병과 같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sup>29)</sup> 그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 상소를 했냐는 일본 경찰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직(職), 즉 ‘문자와 의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상소는 그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sup>30)</sup> 그의 사고 속에서 상소를 통한 일본에 대한 저항은 다름 아닌 한국의 신자(臣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었고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sup>31)</sup> 이는 곧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자신의 행동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주지하듯, 광종석과 이승희 뿐만 아니라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전국의 수많은 유림들이 상소를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실 이승희가 「청주적신과늑약소(請誅賊臣罷勒約疏)」와 「달폐일기」에서 주장한 내용 역시

27) 앞의 책, 430쪽, “我即大韓無用之一庸人, 勇不足以殺一日人, 以雪國家之耻; 才不足以輔吾國家, 以報日國之讐. 年今六旬, 死亦無惜, 但得拘幽於此, 則尙可使天下之人, 知大韓人情之反對新約, 而日國有脅勒之罪矣.”

28) 앞의 책, 427쪽, “今彼虜所欲者, 乃屈我也, 我既不屈, 則兒雖欲生之, 得乎!”

29) 같은 책, 424쪽, “有義兵之意否, 曰無之.”

30) 같은 책, 423쪽, “余曰: 我一腐儒耳, 但知文字義理, 上疏則吾職也.”

31) 같은 책, 427쪽, “余曰: 我欲爲我韓臣子之職耳, 前已屢言, 今復何說.”

당시 유생들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국내법 절차나 만국공법에 위배되고 고종의 뜻이 아닌 겁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여 이를 파기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일본은 정교한 반박 논리를 표출하기 어려웠다. 일본군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상소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탄압을 가하는 것이었다.<sup>32)</sup>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영환·조병세처럼 자결로서 저항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 때 이승희는 바로 ‘상소’가 자신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즉 일기 속에 그는 신하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문자를 아는 ‘식자인(識字人)’으로서의 직분을 실천하는 인물로도 형상화 된 것이다. 결국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한주학과 문중들이 스스로의 직분에 충실한 것처럼, 다른 사대부들과 조선민중들 역시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국권회복의 길’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이승희의 일기에는 비록 을사오적과 같은 무리들에 의해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 신세가 되었지만 많은 전국에 있는 사대부들의 의중은 모두 자기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가둔다고 해도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이 있어 한 명 한 명을 따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즉 ‘상소’를 통한 투쟁이 일본에 의해 저지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후에도 신하된 자로서의 ‘직분’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일을 펼쳐나가자는 뜻을 전체 문중에게 전한 것이다. 이러한 뜻은 일본인 경부에게 건넨 그의 시 속에도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妄擬澹菴斬檜擧,  
那期燕獄供元辭.  
心跡昭昭無用問,  
大韓臣子大韓知.<sup>34)</sup>

망령되어 담암(澹菴) 선생이 진회 참수한 것 본뜨다  
어찌 연나라 옥에서 원나라 말로 공초당할 것 기억했나.  
마음의 자취는 맑고 맑아 물을 것이 없을지니  
대한의 신자임을 대한이 알리라.

32) 이상찬, 「을사조약 반대상소와 5대신의 반박상소에 나타난 을사조약의 문제점」, 『한국근현대사연구』64,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13, 24쪽.

33) 위의 책, 仍曰: “今問此何爲? 作通者我也, 上疏者我也, 何問餘人? 若泛問其同志之人, 則我大韓臣子皆同, 能一一推究耶?” 彼嘿然良久, 顧巡檢還囚.

이 시는 확고부동한 이승희의 신념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조선의 처지를 원나라의 침입을 받고 흔들렸던 남송에 비교한 이승희는, 자신의 처지를 호전(胡銓, 1102~1180)에 빗대었다. 더불어 그가 척살을 요구한 을사오적을 악비(岳飛)를 죽이고 금과의 화친을 주장한, 간신 중의 간신으로 평가받는 진회(秦檜)에 비견하며 다시금 을사오적의 척살을 요구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밝혔다.<sup>35)</sup> 그러면서 원(元)과의 화친에 반대하다 연옥(燕獄)에 갇힌 후 끝까지 저항하다 생을 마감한 송말(宋末)의 충신(忠臣) 문천상(文天祥, 1236~1283)<sup>36)</sup>을 떠올리며 자신 또한 죽음 각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렇듯 그의 마음의 자취는 복잡하기는 고사하고, 너무도 단순하고 명명백백하다. 자신은 대한에서 태어난 대한의 신자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관이었던 일본 경찰은 그의 이러한 깊은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승희를 잔뜩 노려 볼 뿐이다.<sup>37)</sup>

한편 대구경찰서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근무하고 있던 바, 본 일기에서도 그들의 모습 또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일기에서 이들은 일본인 아래에서 일을 하며 그들을 적극 도와 조선인을 겁

34) 같은 책, 423쪽. 한편 이 시는 『韓溪遺稿』卷1(101쪽)에 「被日兵捉致達城之警務署, 與警部鎌田三郎問答, 即席書示」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35) 담암(澹菴)은 호전(胡銓, 1102~1180)의 호이고 회(檜)는 충신(忠臣) 악비(岳飛)를 죽이고 금나라에 대한 화친을 주장한 진회(秦檜)를 말한다. 담암은 송 고종(宋高宗) 소흥(紹興) 7년(1137)에 금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하여 주화파(主和派)인 진회(秦檜)·왕륜(王倫)·손근(孫近) 등 삼간신(三奸臣)을 죽이고 화의를 중지하라고 상소하여 주전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일로 멀리 폄직(貶職)되었다가 진회가 죽고 난 뒤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후 국내에서 진회는 주화파의 상징으로 공박되었다. (박덕규, 「중국 역사이야기」, 일송북, 2005, 71쪽)

36) 문천상(文天祥, 1236~1282): 자는 송서(宋瑞), 호는 문산(文山),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남송이 망국에 이르자 가산을 모두 기울여 군비를 마련한 다음 1만여 명의 근왕병을 모집해서 출정했다. 원(元) 나라 장수 장홍범(張弘範)에게 붙잡혀 연경(燕京)으로 끌려가서도, 3년 동안이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절조를 지키다 죽다. 이에 원 세조(元世祖) 쿠빌라이조차 탄복하며 ‘진남자(眞男子)’라고 일컬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37) 그는 통사의 입을 빌려 그들의 지적 소양을 지적하며 “일본 사람들은 문자에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日記』, 423쪽, 彼瞻視久之通辭曰: “日人不識文字深義, 可以言對?”)

박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조선인 이승희를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들마저도 조선을 위해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있었음을 보인 것이다. “대개 그곳에서 일하는 한인들은 오히려 나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했다.”는 그의 말은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sup>38)</sup> 또한 1916년 3월 즈음, 그의 아들 이기원이 자신을 대신하여 감옥살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총순(摠巡) 박연조(朴淵祚)가 그 마음 가엽게 여겨 그를 청리의 뒷방에 거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순검 최두윤(崔斗潤)을 포함한 여러 인원들이 다시 매우 간곡하게 부탁하여 그를 설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sup>39)</sup> 비록 경찰의 업무를 다루지만 일본인의 눈을 피해 조선인을 도우려는 한인 관계자들의 노력을 기술하며, 당시 대다수 조선 민초들의 심리와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곽종석과 더불어 한주학과의 사상을 계승하고 국권회복 운동을 주도한 핵심 인사였다.<sup>40)</sup> 그런 그가 예상치 못하게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대구경찰서에 갇혀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지역 문증을 넘어 유럽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주목했을 것이다. 이에 그는 「달페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그 곳에서의 일을 압축적으로 전했다. 그는 경부와 순검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을사조약의 비합법적 측면과 폭력적인 강제성을 더욱 노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저항은 신하된 자로서의 직분이자 소임임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의 것이 아닌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이승희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 망명을 기획했다고 알려져 있다.<sup>41)</sup> 당대 의병 운

38) 같은 책, 422쪽. 盖我韓人之役於其中者，尙憫余之觸於凶禍也.

39) 같은 책, 428쪽. 三月間，基元以代囚之意，再次呈狀于警署摠巡，摠巡朴淵祚，憫其情，要余出處廳使後房。余曰：“我既被拘，而不能脫，則亦安之而已，何區區求自寬乎”，仍責兒子曰：“我在彼安身，不如在此安心也？”基元更不敢言，摠巡及諸巡檢皆苦請，巡檢崔斗潤，自余被拘，屢致情疑，尤懇之不已.

40) 권대웅, 「한말 한주학과의 계몽운동」, 『대동문화연구』3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394쪽.

동의 중심에 있던 의암 유인석(毅菴 柳麟錫, 1842~1915)이 제시했던 처변삼사(處變三事) 가운데 “거지수구(去之守舊)”, 즉 국외로 망명하여 옛 것을 지키는 길을 대구 감옥에서 모색한 것이다.<sup>42)</sup>

이 감옥에서의 체험은 『달폐일기』를 통해 매우 사실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는 이곳에서의 체험을 단순히 자신의 것에 그치지 않고자, 위의 일기를 써서 주변 유럽들의 더욱 독려하며 저항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유학적 가치의 지속과 확장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당대 한주학파의 의리실천 정신과 연결되는 것이다.<sup>43)</sup> 더불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보호국 신세가 되어 ‘준(準)식민지’ 상태가 되었지만, 조선인 개개인만은 그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면서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실천방도를 제시하였다. 일기 속에서 그가 일본 경찰 관계자들을 논박하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조선의 선비와 민중들도 자신의 직분을 다하여 일본에 맞서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요컨대 그는 스스로의 직분에 다하는 인물들을 일기 속에 형상화함으로써, 일본이 ‘힘’으로 조선을 눌렀지만 자신과 조선인 개개인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본 일기를 통해 전달하였다.

#### IV. 결론

대한제국기 일본의 조치에 저항했던 유럽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상황인식, 그리고 실정에 따라 저항의지를 실천으로 옮겼지만 전세를 역전할 수는 없었다. 호서지역의 의병을 이끌었던 유인석은 중국으로 몸을

41) 금장태, 『한국 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226쪽.

42) 송기섭, 「의암 유인석의 망명노정에서의 보화와 국권회복운동 고찰」, 『의암학연구』14, 의암학회, 2016, 161쪽. 참고로 처변삼사는, 거의소청(擧義掃清: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하는 것), 거지수구(去之守舊: 국외로 망명해서 옛것을 지키는 것), 자정치명(自靖致命: 의리를 간직한 채 자결하는 것)을 말한다.

43) 정병식, 「한계 이승희의 한주학 계승과 현실의 대응」,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75쪽.

피해 재기를 노리는 망명객의 신세가 되었고 노구를 이끌고 꺾기한 호남의 최익현은 결국 적지 대마도에서 옥사하고 말았다. 영남 성주와 고령일대의 유종(儒宗)이었던 이승희는 상소 투쟁을 하며 저항하였고 출옥 이후에는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며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리고 이후 그 역시 해삼위로 망명하였다. 이들의 방법론에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조선의 마지막 신하로서 자신에게 닥쳐온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동기’만큼은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희에게 그것은 곧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소를 통해 행동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을미사변 이후인 1896년 일본을 규탄하며 각국 공사관에 보낸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 이래로, 일본이 대의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증명시키면 병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소신’의 실천이었다.<sup>44)</sup>

대구경찰서에서 103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는 『달페일기』는 앞서 논한 것처럼 일기 그 자체로서의 완성도는 높지 않다. 하지만 을사조약 체결 반대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옥중에서의 경험들을 대화체로 옮기면서 자신의 저항정신을 보다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일본 경찰 간부와의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대화들은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생생하게 재현했다. 일기는 이승희의 결기를 이기지 못한 일본인 순검이 그를 서둘러 내보내려하고, 이승희 자신은 옥중에 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모순된 상황으로 마무리되며 웃음을 자아내기까지 한다. 기존 일기들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담아내고 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일기는 일기라는 표제와 형식을 갖고 있지만, 보통의 일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하루하루의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차분하게 ‘기록’하여 소장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타인에게 전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의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서술이

44) 김형목, 「성주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에서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11쪽.

아닌 대화를 통해 현장성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상투적인 한문글쓰기 범주에서 벗어나 일본 경찰의 표정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의성어·의태어·형용사들이 사용되었다. 일기 속에서 이승희는 일본 경찰의 협박을 모두 물리쳤고 나아가 을사조약의 합법성과 통감부 설치의 정당성을 모두 논박하였다. 회유하는 그들을 단칼에 뿌리치며 ‘상소투쟁’에 이은 ‘옥중투쟁’으로 나아가 일본인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의 체험이면서 동시에 자신과 같은 행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희망과 기대이기도 했다.

결국 일기 속에서 자신은 신자(臣子)로서의 직분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상소를 할 것임을 밝혔고, 상소를 안 하면 보내준다는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였다. 대조적으로 일본경찰은 패검과 육혈포를 차고 다니고 가혹한 형구로서 이승희를 위협한다. 자신을 보는 그들의 시선은 “당목(瞪目, 눈을 부릅뜸), 직시(直視, 쏘아 봄), 진목(瞋目, 눈을 부라림)” 등과 같지만 을사조약을 파기하고 을사오적을 처벌하라는 그의 논리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만다. 그들이 가진 위세와 무력만으로는 그의 기개를 누를 수 없게 되자, 일본 경찰은 석방을 빌미로 회유해보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본인들이 나서 이승희의 출옥을 주도하는 형국까지 연출하게 된다. 결국 이승희는 당시 조선의 국력이 일본의 무력을 압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아닌 개인은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또한 이러한 글을 동지들과 공유함으로써 현실에서의 허무와 좌절을 다소나마 잊으려는 동기에서 일기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이후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했다.

대한제국기 을사조약에 반대했던 유림의 옥중 투쟁의 전모를 담고 있는 이승희의 『달페일기』는 당대의 일기자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적 국면이 잘 반영되었다.<sup>45)</sup>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 일기는 당시

45) 대한제국기 일기의 형식으로 감옥의 체험을 담은 (서사)문학은 그 사례가 매우 적은데, 『달페일기』는 그 시원에 해당된다. 이후 그의 동료이자 동지였던 장석영 또한 이곳에 갇히는데 그 역시 1919년에 남긴 옥중 경험을 담은 『흑산록(黑山錄)』을 저술



의 상황과 실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본 일기는 기승전결의 서사전개 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그 때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묘사한 특색 있는 작품이다. 즉 『달폐일기』는 그의 문집 속에서 이승희의 저항 정신을 대단히 선명히 드러내는 백미와 같은 기록이면서 당시 저항 유림의 면모를 실감 있게 드러내는 문학작품인 것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8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9월 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하였다. 절친한 동지였던 이승희의 영향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는 바이다.(정우락, 「晦堂 張錫英이 쓴 『黑山錄』의 서술방식과 가치」, 『영남학』2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참조)

## 참고문헌

- 이승희, 『한계유고(韓溪遺稿)』1~9, 국사편찬위원회, 1976~1982.
- 고순희, 「근대계몽기 <을사명의로>에 나타난 인물의 형상과 의미」, 『국학연구』 23, 국학진흥원, 2013. ,
- 권대웅, 「한말 한주학파의 계몽운동」, 『대동문화연구』3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한계 이승희의 생애와 독립운동』, 성주문화원, 2018.
- 김형목, 「성주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에서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 금장태, 「한계 이승희의 생애와 사상(1)」, 『대동문화연구』1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85; 『한국 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 이상찬, 「을사조약 반대상소와 5대신의 반박상소에 나타난 을사조약의 문제점」, 『한국근현대사연구』64,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13.
- 이세동, 「홍와(弘窩) 이두훈(李斗勳)의 삶과 학문」, 『퇴계학과 유교문화』4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이윤갑, 「한말 이승희의 국권회복론 연구」, 『한국학논집』6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한말 경상도 성주의 국권회복운동과 그 사상」, 『한국학논집』7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 이택동, 「회당 장식영론」,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대계 이승희론」, 『시학과 언어학』22, 시학과 언어학회, 2012.
- 송기섭, 「의암 유인석의 망명노정에서의 보화와 국권회복운동 고찰」, 『의암학연구』14, 의암학회, 2016.
- 정병석, 「한계 이승희의 한주학 계승과 현실의 대응」,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 정우락, 「회당 장식영이 쓴 『흑산록』의 서술방식과 가치」, 『영남학』2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30, 대동한문화회,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ve background and  
Characterization of Daegye LeeSeungHee(大溪  
李承熙)'s 「Dalpeilgi(達狴日記)」

Han, Gil-ro

When the “Treaty of Eulsa(乙巳條約)” was signed in 1905, many people and Confucian scholars resisted. Lee Seung-hee also rejected Japanese rule and strongly criticized the “Five Eulsa Traitors(乙巳五賊)”. He wrote to the king, asking him to destroy the treaty and punish the Five traitor. However, he failed to do this and he went to Daegu Police Station with Japanese police. The theme of this diary is Lee Seung-hee's prison experience and records conversations with Japanese police in prison. He lived in a prison at Daegu Police Station from December 6, 1905 to April 7, 1906, and all of them lived in prison for 103 days. In his diary 「Dalpe-ilgi(達狴日記)」, Lee Seung-hee was threatened by Japanese police, but with confidence and dignified attitude, he tolerated their threats. He also argued that the treaty of 1905 should be destroyed, saying that it was illegal and irrational. In this background, his diary is different from the diary in the general sense. So it is not an individual record but a historical record, and the narrative structure is more like a novel than a diary. Through his diary, he told him not to grieve about reality, but to resist it with courage, and that he would do it if he had to. In other words, you have to be

faithful to your “personal duties(職分)”. He thought it was the only de facto way to rescue and advance a difficult country. In summary, his diary is not highly complete. But he showed a more realistic and lively literary sense than a diary. His diary is a representative novel diary that shows the spirit of resistance Confucianists and the beliefs of the country.

**keywords :**

Lee Seung-Hee(李承熙), Hanjoo schools's(寒洲學派), 「Dalpeilgi(達狴日記)」, 『Hangyeyugo(韓溪遺稿)』, Resistant Literature